

책 머리에

이제 이십 일도 채 남지 않은 2017년 올해는 시민 항쟁이 한국을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케 하였던 기념비적 대사건인 6월민주항쟁 30주년의 해이다. 바로 올해 한국인들은 작년 가을부터 이어진 촛불 시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이끌어내고 마침내 촛불 정신과 열망을 표현할 민주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지난 권위주의정권하에서 국가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축적되었던 적폐를 청산하고 한국 사회와 국가 전 영역에서 민주적 질서를 뿌리 내리게 하고자 분투를 아끼지 않았다. 한 해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된 촛불 혁명 앞에서 우리는 올해를 한국 현대사의 한 획기(劃期)라고, 또 희망의 연대(年代)라고 생각하면서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끼곤 하였다.

동시에 2017년 가로에서 보이는 '태극기 부대'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당혹감을 느끼고, 심지어 연민의 정까지 가지곤 하였다. 우리는 작년부터의 촛불 시위 과정에서, 또 올해 촛불 혁명의 진행 과정에서도 광장 한 귀퉁이에서, 또 주택가 거리에서 울부짖는 태극기 부대의 저주와 광기 어린 목소리와 몸짓을 보아왔다. 그 목소리와 몸짓 앞에서 우

리는 그 부대가 동원된 대중이라고 간편하게 생각하다가, 그 부대원들 역시 냉전적 반공주의 독재의 희생자라고 연민의 정까지 가지기도 하였다. 때로는 우리는 태극기 부대를 ‘신자유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과 이를 배경으로 한 한국 내(內) 보수 정권의 연속적 집권과 정치 퇴행’의 소산이라고, 또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의 표현이라고 판정하기도 한다.

태극기 부대 앞에서 느껴지는 당혹감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민주주의 자체를 성찰하도록 이끌기도 한다. 태극기 부대의 몸짓과 울부짖음은 민주주의가 헌법 조문으로까지 제도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가능할까’ 하는 당혹감을 우리에게 안겨주곤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당혹감은 우리로 하여금 ‘민주주의가 포용의 동학과 함께 배제의 동학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는 테일러(Charles Taylor)를 떠올리게 한다. 혹시 태극기 부대가 ‘제도화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속에서 발생하는 특정 집단의 희생과 차별’의 소산은 아닐까? 이와 같은 의문은 태극기 부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 성찰에도, 근본적 성찰을 위한 역사적 성찰에도 우리들을 이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서구에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한국에서도 ‘역사적 존재’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서구에서 ‘인민 주권’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이후, 민주주의는 민족주의와 함께 주요 정치 원리로서 기능하면서 근대성의 핵심적 지표로까지 자리매김 되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위상이 서구적 근대화를 목표로 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동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위치를 기본적으로 결정하면서, 민주주의

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대의이자 그러한 성격의 이념으로 되었다. 더군다나 한국 현대사에서 장기간 지속된 권위주의 지배에 대한 반대 투쟁의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는 실현되어야 할 ‘당위’의 것으로 되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한국 현대사에서 이중적 성격의 것이었다. 4·19나 6월민주항쟁 등 현대 한국의 저항 운동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적 독재에 대한 대중적 저항과 대중의 자기 해방 노력을 뒷받침 하는 이념적 무기로 기능하여왔다. 동시에 그것은 지배의 이데올로기적 무기로도 기능하여왔다. 즉 한국의 식민지 해방과 2차 대전 종전 직후 한국의 분단과 냉전의 세계적 전개 속에서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냉전 블록에의 편입을, 역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자기 헤게모니 블록 내로 편재시키는 것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지배의 전략적 기표로 기능해왔다.

민주주의의 이중적 기능과 성격은 민주주의를 지배 세력에게든 그에 저항하는 세력에게든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천부의 것’으로 탈역사화하고, 또 민주주의를 절대화·신화화되도록 하였다. 최상명이 이야기 하듯이, ‘신화가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그 이데올로기가 인간을 행동하게 한다’면, 신화화된 민주주의는 맹목(盲目)의 이데올로기와 이에 추동되는 맹목적 인간 행위를 낳고, 이로 구성되는 사회와 역사를 만들어 내면서, 민주주의의 종국적 지향인 자유와 해방에의 도정을 오히려 억압할 것이다. 그렇다 한다면,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도 민주주의의 절대 이념화와 신화화는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절대 이념화와 신화화에 대한 경계 필요성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 이래 진보 운동의 발전과 관련 이론의 심화는 민주주의의 동력학을 추적하여 그것의 계급적 성격과 역사적 함의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는 ‘탈(脫)이념화’되면서 하나의 역사적 산물이자 역사의 표현으로서 역사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때때로 ‘회극적’으로 남한 사회를 엄습하는 권위주의 보수 세력의 등장과 잇따른 민주주의의 퇴행은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신화화와 절대화를 낳곤 하였다. 이와 같은 모순적, 역설적 상황은 반(反)민주주의 세력과 질서에 대한 엄중한 경계와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탈절대화·탈신화화라는 이중적 과제를 남한 사회에 부과한다.

민주주의를 탈절대화·탈신화화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역사가 요청된다. 민주주의의 탈절대화·탈신화화는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민주주의의 담론적 성격을 밝히어 당위의 것으로 절대 이념화된 민주주의가 기실 특정 권력 구조와 관계 속에서 작동되면서 그것이 권력적·지배적 기능을 수행하는 담론 체계이기도 함을 보여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절대화되고 신화화된 민주주의의 탈화(脫化)에는 민주주의의 역사화, 특히 그것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푸코(Michel Foucault)적 의미에서, 따라서 계보학적 접근이 아닌—또한 그것의 탈신화화의 유력한 경로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화는 적지 않은 경우 계보학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화라는 관점에서 수행된 적지 않은 연구

는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기원과 계보의 추적'이라는 '계보학적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그와 같은 연구는, '초기'라는 언어 사용이 암시하듯이, 종전/해방 직후 민주주의 제도화와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와 그 제도를 연속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 계보의 기원을 추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보학적 연구'라 할 수 있다. 계보학적 연구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의제(agenda)를 주제로 하여 '과거'를 대상화하고, 그와 연결되지 않는 과거의 모습들을 역사로부터 격리시키면서 과거를 탈역사화한다.

계보학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 역사화의 문제점은 우리로 하여금 비계보학적 접근의 민주주의 역사화를 필요로 한다. 탈역사화의 계보학적 연구는 심지어, 푸코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탄생의 엄숙함과 숭고함, 또 그 찬란함'을 '찬미'하기- 직접적으로 하든, 아니면 '결과적으로'와 같이 간접적으로 하든-까지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 앞에서 우리는, 최소한, 비계보학적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역사화할 필요가 있다. 비계보학적 역사화에 있어 유의할 것은 무엇보다도 역사적 맥락이다. 언어의 의미가 용례와 그것의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언명 등에 유의할 때 민주주의 역사화에 있어 주목할 것은 민주주의가 발화되는 당대 역사적·사회적 맥락이다.

민주주의의 역사적·사회적 맥락화는 민주주의 관련사(事·史)를 둘러싼 시공간성의 맥락화를 요청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민주주의 관련사-예컨대 '민주주의의 수용'과 같은-를 하나의 텍스트로 이해하여 그것 내부의 구성과 그 구성에서 보이는 내적 특성-예컨대 균열과 내과 등

-에 유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의할 것은 텍스트화된 민주주의 관련사와 관련된 주체들의 역사적·사회적 위치와 정치적·사회적 의제와 기획(project), 그리고 이 속에 표현되거나 잠재된 그들의 욕망 등이다. 이러한 위에서 민주주의 맥락화는 민주주의 관련사를 낳은 당대 시·공간성-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동아시아' 등과 같은-에 유의한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 맥락화는 민주주의 자체와 함께 그와 관련된 역사적·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대·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와 같은 민주주의 맥락화는 먼저 특정 시공간에서 존재하는 인간들의 갈등, 경쟁, 충돌하는 욕망과 기획 등이 당대적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조우해 때로는 그것과 갈등, 충돌, 길항하면서 민주주의 관련사들을 만들어내거나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줄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관련사에 대한 이해 심화는 다시 민주주의의 동력학과 기능 및 역할, 이러한 속에서 구성되는 그것의 역사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성찰을,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능성, 내지는 그 대안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희망에서 민주주의 역사화는 요청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역사화를 희망하면서 본 『기억과 전망』 37호는 크게 특집 논문과 기획 논문, 그리고 일반 논문, 또 회고록과 서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특집은 '6월 민주항쟁 30년의 문화'라는 주제로 두 편의 논문, 즉 김형철의 "86세대의 집단 간 사회적 자본과 정치적 정체성 비교:

학생운동 활동가를 중심으로”와 이승민의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와 민주주의 연구: 6월항쟁을 다룬 영화를 중심으로”를 수록하였다.

김형철의 논문은 1987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86세대 내의 집단 간 사회적 자본이 정치적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비교할 목적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활동가를 포함한 학생운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정치의식 자료를 이용해 86세대 내 학생운동 참여자라는 ‘세대 단위’와 86세대의 실제 세대의 사회 자본의 정도와 정치적 정체성을 비교 분석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세대 단위가 호혜성과 연대성 그리고 정치 관심도가 실제 세대보다 높지만 정치 참여도, 이념 성향, 그리고 정치제도 등 개혁에 대해서는 양자 간 차이가 없어 그들이 동질적임과 함께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승민의 논문은 한국 민주화의 산물이자 동반자이며 또한 촉발제였던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국 정치 사회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면서 그것의 역사가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까지의 계몽적 시기와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겹쳐지는 성찰적 시기, 또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나란히 한 미학적 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그 논문은 액티비즘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영화의 계보와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그것의 세 가지 제작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논문은 1987년 6월을 다룬 〈명성, 그 6일의 기록〉과 〈용산〉, 또 〈순환하는 밤〉 세 편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영화 속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기획하여, 김성은의 “아름

다운 청년’ 전태일과 진정성 담론의 역설”과 박소연·정태수의 “독재정권 속 여성 목격자: 크리스티안 문지우 영화 <내겐 너무 멋진 서쪽 나라>, <4개월, 3주 ... 그리고 2일>, <신의 소녀들>”이라는 두 편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김성은의 논문은 전태일에 대한 기억이 기억 투쟁의 단계를 지나 현재 공식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전태일의 표상을 구축하는 데 커다란 기여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통해 진정성으로 대표되는 전태일 담론이 한국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였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이 논문은 진정성 담론이 전태일의 대중화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재현을 획일화하고 그의 다양한 면모를 가리는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역설적 효과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논문은 진정성이 텅 빈 기표에 가까운 것으로서 오로지 타자가 평가하는 가치라는 점에서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이용되기 쉽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소연과 정태수의 논문은 루마니아에서 1965년 이후 25년간 지속된 차우세스쿠 독재 정권의 붕괴 이후 루마니아 영화 산업에서 새로운 영화의 경향과 비전을 내세우는 뉴웨이브 감독의 하나인 크리스티안 문지우 감독 영화를 검토하고 있다. 논문은 크리스티안 문지우 감독이 영화에서 여성들의 몸을 통해 국가권력과 폭력, 또 억압을 드러내 보이려 했던 것에서처럼 타자화된 여성들의 관점을 통해 루마니아의 과거를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논문은 그 감독의 영화에서 과거의 목격자인 여성의 시선이 영화 전체의 리얼리즘 형식을 전복하면서 영화 관객으로 하여금 그들의 역사 의식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논문으로는 김현진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의 정치적 의미”와 최정욱의 “미국 텍사스의 내신 상위 10% 자동입학제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입학정책”이 실렸다. 김현진의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과정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국민 여론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판단을 통해 제도적 기관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행위자로 민주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문은 정치적 행위자의 다양성과 의사 결정 과정의 표용성이 수용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가 대의 민주주의의 정치 과정에서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와 투표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정치 과정에 대한 협소한 관점을 확대하고 중첩적 다수를 강조하는 이원적 민주주의관과 헌정 민주주의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정욱의 논문은 미국 텍사스주에서 지역 격차와 대학 수학 기회의 불균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내신 상위 10% 학생의 주립대학 자동입학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 및 한국 제도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논문이다. 논문은 자동입학제가 입법 취지에 맞게 고교별 대학 합격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효과가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도 밝히고 있다. 나아가 논문은 미국 텍사스 제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면서, 학생 선발전형의 대학 자율권 부여와 고등학교 서열화 문제 시정, 고교 정규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 회복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

끝으로 최상명의 회고록 “전대협 30년, 신화 생성의 기억과 586의 오

늘에 대한 성찰”과 이규정의 서평 “경계를 넘어 불꽃 속으로-시대의 치열한 실천가, 황석영”이 수록되어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최상명의 회고록은 1987년 8월 19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 탄생 당시 한양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자 전대협 등의 회원으로 활동했던 필자의 경험과 당시 ‘동지들’의 인터뷰 기록에 기초해서, 전대협의 탄생까지의 과정을 당시의 정치 정세와 학생운동권의 정치·조직 노선의 변화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회고록은 애국학생투쟁연합에서 전대협의 맹아가 시작되어, 이후의 ‘민주화운동의 대중운동 시대’에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결성되고, 다시 6월 항쟁의 전후 과정에서 18개 지구 대표자협의회 구성을 결정적 계기로 하여 전대협 조직이 탄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규정의 서평은 각각 「경계를 넘다」와 「불꽃 속으로」 2편으로 구성된 황석영의 2017년 출간 자전 『수인(四人)』(문학동네)을 평함에 있어 해방 이전 만주에서 태어났던 황석영의 삶이 한국 현대 정치사의 요약이라고 이해하면서 황석영의 삶과 한국 정치사를 연결시켜 황석영과 그의 자전을 평하고 있다. 서평에 따르면, 황석영은 “민주화와 통일은 한몸이다”라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경계를 넘어 불꽃 속으로 표표히 걸어들어 간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서평은 자전의 제목인 ‘수인’이 “작가만이 아니라, 분단과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말로 글을 마감하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이 구성된 『기억과 전망』 37호가 민주주의 관련사들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 심화와 확대에 하나의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본 『기억과 전망』 37호의 원고 집필자와 편집자, 나아가 독
자 여러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본권의 머리말을 마친다. ~~끝~~

2017년 12월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종명 씀